

단군사상과 한류연구

김 용 환

충북대학교

〈요 약〉

동아시아인들의 문화적 선택으로 한류가 등장하였다. 한류의 종교교육의 함축의미는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단군사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한류의 근원에 대한 조망이다. 단군사상에서 한얼·하느님 꿈은 영성차원에서 광명개천의 신명육망으로 드러나며, 생태차원에서 원화위인의 문명육구로 나타나며, 물질차원에서 주원유일의 홍익요구로 이어진다. 이들 세 요소는 상호 소통된다. 다시 말하면, 천지창조의 꿈, 상호소통의 소원, 그리고 생명화육의 현실요구는 서로 다른 가치세계를 다양하게 원형적으로 소통시키면서 한민족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러한 ‘한’의 창조설계를 근거로 ‘한얼’을 매개로 하느님을 향한 신명세계를 창조하고, 한마음을 매개로 동물의 갈등을 해소하여 조화·문명세계를 일구고, 한세상을 매개로 다산과 풍요를 표상하는 현실요구를 구현한다. 한류의 종교교육 가치는 이러한 세 차원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전체적으로 위대한 한얼의 신령기운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물질세계로 화현되면서 홍익가치를 구현하는 가운데 생명의 풍요로움을 구가하게 된다. 단군사상은 ‘생성’(Becoming)의 영성가치(spiritual value)를 구현하려는 한국인의 태초상념을 제시한다.

한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단군사상에 나타난 삼태극의 삼원사고는 이중부정과 이중긍정을 횡단 매개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류로 계승되면서 항상 새롭게 개신하려는 노력으로 세계민족에게 삼태극의 가치가 중요함을 밝혀주고 있다. 단군사상의 삼태극은 신명극, 문명극, 홍익극의 삼원사고로 이루어져 서양 이분법 논리를 지양 극복하는 토대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삼태극의 기원이 인간영성 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영성수행과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악육강식 논리가 지배하는 영웅 공동체가 아니라 밝음으로 어둠을 교화하는 성인의 영성공동체이다. 그래서 한민족은 영성적으로 진화된 정신문명을 주변의 미개 문명인에게 전파하는 매개역할을 하였다. 고조선 공동체의 영성 활동을 반영하는 것이 단군사상이다. 단군사상에 근거를 둔 한류의 멋진 아우름은 한반도 공동체 신명을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의 평형회복을 이루게 하며, 집단신명으로 표출되어 신바람 흥(興)을 표출하였다.

이처럼 ‘한’사상은 한얼님(三神上帝)의 원력의 영성세계를 지상에 건설하려는 지상선경 비전을 담는다. 민족종교는 신·인·합·발에서 지상선경 이념을 강조한다. 그것이 곧 광명개천, 재세이화, 홍익인간의 영성차원을 횡단매개로 열기 위한 이념이며, 그것이 표출된 것이 한류이다. 이처럼 한류는 동아시아인의 문화선택이지만 21세기 종교교육 대상으로 부각된다. 한반도에 반만년 역사가 흘러가면서 신명세계와 소통하지 못한 한이 가슴에 배어 있고, 문명세계와 화해하지 못하는 비극이 역사에 담겨 있다. 그러나 빛은 감출 수 없듯, 한국인 가슴에는 이러한 한얼 빛의 숨결이 한류문명으로 고동치고 있다. 이렇게 삼태극의 양면을 이해할 때 한류의 생생 역동성을 삼원사고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다.

핵심 주제어 : 신명육망, 문명육구, 홍익요구, 눈부처, 삼태극성, 단군사상, 한류, 횡단매개성

* 이 글은 2007년 4월 13일 중국 서안, 강서사범대학에서 개최된 제 15차 ‘한중윤리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한국 논평자와 중국 江西大學 黃藝博士께 감사드립니다.

I. 머리말

신학적으로 16세기 서구에서는 종교개혁 신학이 이루어졌고, 17세기에는 종교개혁 콘텐츠를 스콜라주의로 체계화시킨 정통주의가 나타났고, 18세기에는 계몽주의와 경건주의로 신학이 새롭게 갱신되는 합리주의 신학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19세기에는 독일 관념론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 신학으로 발전하였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위기신학과 실존주의 신학이 등장하였다. 서양의 기독교는 이렇듯이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지만, 오늘날의 한국 신학은 그 상황이 다르다. 자유주의 신학에 반기를 든 근본주의 신학¹⁾이 미국 사회의 청교도 전통과 맞물려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한국에 전파된 후, 아직까지 폐쇄적 독선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열린 종교’를 지향하는 새로운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인들은 한류를 문화선택의 계기로 삼아 서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류드라마와 영화를 통하여 공감을 나누며, 댄서음악을 통하여 동아시아 정서와 동질성을 느끼게 되었다. 실제로 종교적 배타성을 넘어서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편견을 바꾸어 놓은 것은 남녀 순수애정을 다룬 겨울연가였다.²⁾ 동아시아인들이 서양 신학의 타자성과 비현실성에 염증을 느끼고 찾은 대안이 한류였다. 이러한 한류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흐름을 주목하게 된다.³⁾

첫째, 한류를 통해서 동아시아 새로운 아우름의 문화권 형성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제 동아시아 근대화 과정에서 문화적 잠재요소들이 떠오르며 하나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서구 신자유주의의 세계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정감 어린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본토, 홍콩, 대만, 일본에 이르기까지 한류의 문화상품들이 범람한다. 이에 따른 원인규명과 정체성 파악이 요청된다.

둘째, 한류자체로서 문화우위에 있든, 미국 및 일본 주도의 아시아 대중문화의 한 구성요소로서 포함되든, 한류는 삼원사고의 긍정적 측면을 나타낸다. 이러한 한류는 독특한 관계성과 현상타파의 저항력으로, 문화 동질성이 아닌 차이점을 추진축으로 삼아 다원문화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월드컵 이후 한국 영화와 TV드라마의 두드러진

1) 근본주의 신학(根本主義 神學, Fundamentalism)은 20세기 초, 미국에 나타난 정통개신교의 신앙을 수정하거나, 성경의 무오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자유주의 신학시도에 저항하는 신학 사조이다. 개신교 교리를 정의하고 옹호하려는 목적으로 1912-14년에 발행된 일련의 책자, 「근본원리」(Fundamentals)에서 유래한다. 이들의 핵심교리는 (1) 성경의 영감과 무오류성 (2) 삼위일체의 교리 (3)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신성 (4)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5)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승천, 재림 등이다. 이러한 배타적인 근본주의 신학이 한국에 전래되어 전파력이 강하였다. 장로교 분열역사는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2) 이와모토 미치야(嚴本通彌), 「한류와 문화산업·민속학·문화인류학 입장에서」, 한류 국제세미나 발표, 2005, 참조.

3) 강철근, 『한류이야기』, 이채, 2006, 107-9쪽.

조류로서의 상업적 ‘애국심’의 발휘형태와 그 문화적 생산·소비과정에 대한 사상적 분석과 판단을 요청한다. 강한 한국건설의 사회열망과 지속적 역동성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류는 동아시아 문화의 월경과장을 넘어서서 ‘문화적 되감아 내보내기’, 문화적 근대극복의 신기원을 이루어 이분법적 배타성을 극복하는 열린 종교문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의 상향적 세계화로 나타난 격동양상을 한류와 연관시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한다. 한류는 상업적 대중문화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화지평을 이룬다. 한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의 흐름과는 다른 다원·평등 문명세계의 새로운 경로를 제시한다. 한류의 새로운 문화생산과 유통시스템을 통하여 21세기 문화산업강국으로 부상하여 서구열강의 세계적 문화지배구도와 구별되는 문화질서의 구축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아우름의 종교교육의 가치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흐름에서 한류정신은 그 기대와 열망에 있어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연결된다. 그런데 전통문화의 동질성을 느끼고 새로운 문화 창조적 원동력 뿌리에서 우리는 단군사상을 떠올리게 된다. 단군사상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단군을 역사적 인물로서, 신앙의 대상으로, 한국사유의 원형으로 다양하게 인식하였다. 단군을 인식한 한국인은 자연을 존중하며, 소박하고 토속적이며, 절제된 미학을 통해 해학과 유머각각을 나타내면서 심층적으로는 비애감을 토로한다.⁴⁾ 이러한 다양한 감정표출과 심성에는 한국인 고유의 사상 열개가 존재함이다. 한국인은 중국인·일본인과 다른 ‘한’사상이 있기에, 한국인은 한류의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한류는 ‘한’사상의 21세기의 표현이며 단군사상에 그 연원이 있다. 급속히 확산되는 한류에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시원성의 단군사상과 직면한다.

이처럼 단군사상은 한국인의 주변과 중심의식이 반영되어, 한얼의 빛에서 점차로 주변 어둠으로 확산되는 사유열개를 확인한다. 한얼 빛의 중심이 강렬하면 밝은 기운이 뻗치지만, 주변의식이 지배적이면 세월무계와 함께 어둠의 한(恨)이 드러난다. 한국인에게 빛과 어둠의식이 공존하지만, 가슴 한(恨) 맺힘이 한얼 풀림으로 화용되는 화해(reconciliation)의 길목에서 우리는 단군사상을 만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한 맺힘과 한 풀림’의 중핵으로서 단군사상의 삼원사유의 구조를 살펴보고 오늘의 한류 비롯함을 규찰하고자 한다.

II. 단군사상의 삼원사유 구조

단군사상에서 신명의 영성사상(spiritual thought)과 상생의 문명사상, 그리고 홍익의 인본사상(humanitarian thought)을 함께 보게 된다. 이는 ‘한’사상의 삼명중매(三明中媒)의 특징으로 드러난다. 첫째, ‘한’사상은 전체와 부분을 매개하는 ‘횡단매개성’(trans-versality)이 강조된다. 둘째, ‘한’사상은 ‘인격신’(Personal God)의 ‘하느님’을 부각시킨다. 중국에서 은나라 이후 인

4) 『韓國美學試論』,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94, 70-73쪽. 참고

격신이 사라지는 데 비해 한국에는 인격신이 그 명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수운 동학에서 다시 부활한다. 셋째, ‘한’사상은 역동성의 ‘하는 작용’으로 강조된다. 이는 곧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부분이 되는 작용이며 쌍방 소통형의 문화를 상생시킨다.

이러한 ‘한’사상의 뿌리에 단군사상이 자리 잡는다. 단군신화에는 환인의 존재의미가 발견되며, 그 뜻을 온전히 받아 치화주로 강림한 환웅의 횡단매개 가치를 통하여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동반한 신명나라가 전개된다. 이러한 콘텐츠는 농경사회 산물이지만 민족의 정체감을 불러일으키며 살아 있는 역동성을 보여준다.⁵⁾ 이러한 단군사상의 깊이를 오늘의 삶 속에 살리기 위해서는 정신분석 방법이 요청된다. 한국인의 무의식세계의 표층은 슬픔과 회한으로 드러나지만, 그 심층은 빛과 생명에 대한 강렬한 존중의식이 배태된다. 따라서 한국인의 정신세계의 심층구조에 해당하는 단군사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탈현대 사고의 라캉 정신분석 방법을 원용할 수 있다.

라캉은 인간의 주체성의 생성과정에 관심을 가졌고, 이 과정을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첫 단계를 상상 단계(거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상징 단계라고 불렀다.⁶⁾ 이 두 단계를 거치면서 주체는 각각 다르게 구성되지만 공통적으로 자아는 자기 자신이 아닌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주체가 형성된다.⁷⁾ 여기서 한국인의 무의식에서 원형적 타자는 단군이다. 이러한 라캉의 주체형성이론은 주체의 생성측면뿐만 아니라 주체의식의 존재조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일찍이 라캉은 무의식 속에서 발견하려는 것이 언어의 전반구조이며, 이러한 무의식은 본능적인 충동들의 집합이 아니라, ‘언어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라캉은 무의식이 언어와 같은 구조로 짜여있다고 생각하고 무의식을 해명하는 일에 언어모형을 적용하였다. 언어구조는 개별주체가 언어체계로 들어가기 위한 정신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존재한다. 따라서 주체가 언어에 의존함으로써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에게 부여되는 위치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보편적 운동으로서 언어담론 속에 주어져 있다. 주체에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질서는 언어의 권위에 의존하고 언어가 초래하는 변화를 참조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무의식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증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무의식적 생각은 신체 부위에 고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꿈의 경우와 같이 해독할 수 없는 표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개의 경우 무의식의 표출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언어규칙을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그것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든지 혹은 꿈을 통해 나타나든지 간에 무의식의 활동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독이 가능해진다.

5) 바람, 비, 구름을 각각 주관하는 주술사(呪術師)를 동반한 점으로 보아 이러한 사실은 입증된다.

6) Jacques Lacan, *Ecrits*, ed., Seuil, Paris, 1966. p.69.

7) Ibid., pp. 94-6

라캉은 무의식의 진상과 그것의 현현 방식을 도식적으로 그리기 위해 소쉬르의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이론을 도입했는데, 이것은 프로이트의 삼분법에 근거한다. 프로이트의 삼분법은 (1)구체적인 표상을 통해 완전히 재현할 수 없는 무의식적 사고 내용 (2)무의식이 표면화된 증상 (3)증상을 출발점으로 무의식을 언어화하는 언어표상이다. 이 세 가지의 구분에서, 라캉은 의미표현을 통해 드러나지 않으며 그 자체로 계속 감추어진 무의식의 사고내용을 ‘기의: 記意signifié’)라고 부르고 무의식이 일정한 꼴로 표현된 증상과 언어표상을 ‘기표: 記表(signifiant)’라고 한다. 증상과 언어표상은 무의식 의미를 드러내는 기표이다.⁸⁾

언어구조와 마찬가지로 기표들도 차이를 만드는 요소들로 구조화되어 있다. 기표들은 의미생성을 위하여 다른 기표 속으로 침투하고 또 다른 기표를 포섭하기도 하며 상대방에게 서로 의존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기표들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로 환원되고 동시에 완결된 체계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서로 결합하기도 하는 이중운동을 수행한다. 단군사상을 이해하려면 단군언어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며 맥락보편 화용 방법을 지향한다.

단군사상과 관련된 제석천은 원래 인드라(Indra)신이며 문화적 횡단매개로 불교에 등장하였다. 만약 인더스 문명과 수메르-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상호 교류한 것이 확실하다면 서로 상호 교류하였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 두 문명 사이에는 수메르가 먼저이고 수메르가 인더스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한다.⁹⁾ 인더스와 수메르 연관성에 있어서 양자 모두, 최고 높은 주님(Lordship)을 뜻하는 ‘환’(桓)은 ‘한’으로 소통되는 데, 불교의 ‘釋帝桓因’은 언어소의 기표이다. 단군사상의 요체가 되는 영성적 기의로서 ‘삼’은 ‘환인’(桓因), ‘환웅’(桓雄), 단군(檀君)이다.¹⁰⁾ ‘셋’이 표상하는 바는 심층 의식적으로 무엇일까?

우리는 욕구(need)를 표현하기 위해 발화를 사용한다. 우리가 물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말로 요구하면 무엇인가가 변한다. 욕구의 대상은 언어의 차원으로 분쇄 된다. 중요한 것은 대상인 물이 아니라 사랑의 표시이다. 따라서 말한다는 것은 세계 안에 특정한 형태의 상실을 도입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대상을 사라지게 한다. 왜냐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욕구의 대상은 요구(demand)속에서 사라진다.¹¹⁾ 요구는 궁극적으로 사랑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충족될 수 없다.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물음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요구는 나선형의

8) Ibid., p.805.

9) Albert A. Trever, *History of Ancient Civilization*(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36), p. 20.

10) 『檀君世紀』 序, 造化之神 降爲我性 教化之神 降爲我命 治化之神 降爲我精 故惟人 爲最貴最尊於萬物者也; 『太白逸史』 三神五帝本紀, 上界主神 其號曰天一 主造化 有絕對至高之權能 無形而形使萬物各通其性 是爲清眞大之體也 下界主神 其號曰地一 主教化 有至善惟一之法力 無爲而作 使萬物各知其命 是爲善聖大之體也 中界主神 其號曰太一 主治化 有最高無上之德量 無言而化 使萬物各保其精 是爲美能大之體也.

11) Jacques Lacan, *op. cit.*, p.628.

모습을 띠며 계속된다. 그러나 라캉은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 추가한다. 욕구와 요구 뿐 아니라 욕망(desire)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욕망은 요구 수준에서 가려진다. 요구가 무조건적인 데 반해, 욕망은 절대적 조건을 가지며, 쾌락은 이러한 요소들과 연관된다.

요구가 어느 대상에 대한 요구라면 욕망은 어떠한 대상도 없다. 욕망대상은 무(無)이다. 결핍(lack)을 대상으로 삼는다. 거식증 환자는 먹는 것을 거부하면서 요구 너머 욕망에 자리를 제공한다. ‘무(無)’에 대한 욕망,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즉 무(無)를 먹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결핍이 끼어든다. 이는 요구와 욕망 사이의 긴장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구, 욕구, 욕망의 정신분석의 잣대를 단군사상에 적용하면, 한국인 의식의 3층 구조를 발견하게 된다. 한국인의 물질계에 대한 요구는 한국인의 문명에 대한 욕구를 은폐하며, 그 문명은 한국인의 영성적 신명세계에 대한 욕망을 감추고 있다. 지금은 ‘무(無)’에 대한 욕망의 차원으로 압축된 하늘의 신명세계는 환인 하느님이 광명으로 하늘을 새롭게 열게 된 차원이다. 라캉은 이러한 요구, 욕구, 욕망의 세계를 실재, 상징, 상상과 대입하여 설명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현실’이라는 말은 상징과 상상의 혼합이 된다.

먼저 상상세계는 우리가 이미지의 영역에 위치해 있고 자아가 우리 행동의 합리화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이다. 상징세계라 함은 우리를 둘러싼 대부분의 것들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라캉의 정식화에 따르면, 실재계는 상징화되지 않는 것, 즉 상징세계에서 배제된 것이며, ‘상징화에 절대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상상세계, 상징세계, 실재세계는 개인의 내면에서 극중 인물로 등장하는 마음의 힘이 아니라 그 개인을 횡단 매개하는 장 속에 개인을 위치시켜 이에 정신분석 방법이 요청된다.

이러한 정신분석 방법을 단군사상에 적용하면, 환인의 탐구인세(貪求人世)의 욕망에 따른 하늘 신명계가 라캉의 상상세계이다. 원화위인(願化爲人)의 욕구에 따른 문명의 생태계가 라캉의 상징세계이다. ‘주원유잉’(呪願有孕)의 홍익 인간계는 라캉의 실재세계이다.¹²⁾ 이처럼 단군사상 이해는 한국인의 집단무의식의 기표이며 그것의 기의를 파악하려면 라캉의 거울이론 정신분석의 방법이 유용하다. 이제 단군사상의 삼원구조로서 삼태극을 만나게 되며, 이는 이중긍정과 이중부정을 동시에 회통하는 횡단매개 삼원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III. 단군사상의 삼태극 기표

단군사상의 정신분석적 욕망, 욕구, 요구를 하나의 상징으로 압축하면 삼원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삼태극의 기표가 된다. 이러한 삼태극 기표방식은 한국사유의 특성을 보여준다. 단군사상의 삼태극 기표에 대해서 단군신화와 『삼일신고』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조화주, 교화주, 치화주의 삼태극 기표가 ‘한’이다. ‘한’만 있고 삼이 없으면 이것은 작용이 없는

12) Jacques Lacan, *op. cit.*, p.642.

것이며, 삼만 있고 ‘한’이 없으면 그것은 본체가 없다. 그러므로 ‘한’은 삼의 체가 되고, 삼은 ‘한’의 작용이 된다.¹³⁾

현상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의 작용은 결국 본체의 드러남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더욱 놀라운 표현은 작용이 될 수 있는 수는 하나 이외에도 모든 수가 가능할 텐데 유독 숫자 삼으로 삼아, 천지 이치는 하나로써 모양 삼고 삼으로써 변용 삼는다고 한다.¹⁴⁾ 삼이라는 수는 신성을 파괴하지 않고 변화의 전개를 꾀한 수이다. 이 숫자 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심층심리학자 융은 삼이 신령(spiritus)이고 ‘신체가 없는 것’(asomata)이라고 한다.¹⁵⁾ 융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삼일신고’에서 표현한 것과 횡단매개를 이룬다. 삼은 하나보다 변화에 가담하여 삼을 작용으로 순환한다고 말한다.¹⁶⁾ 이에 따른 삼태극 기표를 살펴본다.

1. 욕망의 신명극

단군사상에서 환인이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을 보내어 이 지상을 탐구(貪求)하는 욕망(desire)을 일으켜 천지를 창조하는 단계가 제시된다. 이는 하느님의 꿈이 현실로서 가시화되는 욕망과정이다. 단군사상에서 ‘광명개천(光明開天)’의 이념으로 나타난다.¹⁷⁾ 여기서 말하는 빛은 불빛, 햇빛, 달빛 등 일반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성의 빛이다. 어두운 우리의 의식을 밝혀 줄 지혜의 빛이며 지혜광명이다. 이 빛을 의식하지 못한 생명체는 선악·청탁(淸濁)·후박(厚薄)이 뒤섞여 함부로 치달아, 나서 쇠하고 병들어 죽는 고통에 떨어진다. 광명개천에 밝은 사람은 지감·조식·금촉(止感·調息·禁觸)을 행하여 참된 길로 회향한다.¹⁸⁾

우리는 삼태극과 팔괘의 모습에서 음·양·중(陰·陽·中) 삼·극(三·極)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음과 양을 상징하는 해와 달이 있다. 음·양·중(陰·陽·中)의 ‘삼원사교’는 단군신화에서 발견된다. 삼태극 사유는 ‘한’사상에서 ‘한 멋진 아우름’의 사상으로 여겨어간다. ‘한’은 크디 큰 하나의 포괄적 ‘틀’이고, ‘멋진’은 이상적 미의식이며,

13) 『譯解禮理大全』 大宗教 p.66. 有一無三 是無其用 有三無一 是無其體 故一爲三體 三爲一用

14) Ibid., p.67. 數之變化一二三皆然, 獨以三爲者何也, 曰 二有盡而三則無盡也 凡數法以一除者 不變原理 以二除者 分析無餘 以三除者 循環無窮 故天地之理 以一爲常 而以三爲變也

15) C.G. Jung, *Psychology and Religion*(이은봉 역, 『종교와 심리학』, 經文社, 1980, 89쪽.

16) 『三一圖說』, 三圖 在無上一位 有大德大慧大力 生天 主無數世界.

17) 창조의 첫 과정에서 한열의 영(Spirit)은 두 진동 형태로 분리된다. 하나는 의식이며, 또 다른 하나는 물질이다. 의식은 정교한 진동 형태이며, 물질은 거친 진동 형태이다. 한열의 정교형태는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으로 삼라만상에 내재되어 있다. 인간에게 느낌, 상상이 가능한 마음을 형성한다. ‘광명개천’은 한열이념이고, ‘재세이화’는 문명이념이며, ‘홍인인간’은 인간의 공공 이념이다.

18) 『大倭教經傳』 三一圖說, 衆 善惡淸濁厚薄相雜 從境途任走 隨生長消病沒苦 嘉 止感調息禁攀 一意化行 返妄即眞.



[단군사상의 삼태극성과 팔괘]

초월 자유이다. 아우름은 흥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일상 전개이다. 이른바 동아시아인의 보편 사유에 해당하는 천지인(天地人)삼재는 변용되어 한 아우름의 삼태극 기표로서 광명의 ‘한’을 펼친다. 역사적으로 화랑의 가무강신과 한국유교의 극기복례, 한국불교의 무아열반, 한국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 기표는 한민족에게는 한얼 뿌리에서 뻗어 나온다. 한 멋진 아우름으로서 한국종교의 ‘자기부정’을 통한 초월세계가 가능하다. 한얼의 ‘멋’이 아우름으로 드러나면서 한민족 영성의 심미적 특성으로 독창경지를 이루어 한류를 구축한다.

여기서 ‘한’은 크다는 뜻이며, 한국종교에서는 인격존칭을 붙여 한님 곧 하느님이라고 부른다. 종교적 담이 없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한 전체로 어우러진 삼매경을 최치원은 포함삼교(包含三敎)라고 불렀다. ‘멋’은 단순히 자연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개입된 예술미를 뜻한다. 아우름을 예술로 보고 이러한 흥·자유·조화의 멋을 추구한 한민족의 예술 문화를 최치원은 풍류(風流)라고 했다. ‘아우름’은 조화로운 살림살이이다. 사람다운 사람을 이룩하려는 단군의 후손됨을 최치원은 접화군생(接化郡生)이라 불렀고, 이러한 생명살림의 요구는 동학에서 성실·공경·민음(誠)·敬·‘信’덕목을 부각시켜 조화문명을 낳았다.¹⁹⁾

육당 최남선은 일찍이, 한국 문명을 고산 숭배,白山(白山) 숭배 사상으로 고찰하고,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²⁰⁾을 1925년에 발표했다. 그의 연구 방법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착안은 탁월했다. 불함문화는 인류의 가장 오래 된 문화일 뿐만 아니라, 그 발달 계통으로 볼 때에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이다. 불·함은 ‘불’의 한역이

19) 『東經大全』座識, 吾道博而約 別無他道理 誠敬信三者 這裏做工夫 透後方可知 不怕塵念起 惟恐覺來遲: 修德文, 大抵 此道 心信爲誠…誠與信兮 其則不遠.

20) ‘불함’은 ‘불’의 한자음 표기, 중국 문헌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

니, 하늘과 신과 천도(天道)와 신정(神政)을 의미하는 것이며, 문명 관념과 사실전체를 함유한다.²¹⁾ 이 불함문화는 아득한 옛날부터 일관해 전승해 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문화계통이 분명하며, 그 분포구역이 아시아의 북방 심장 지대를 차지하여, 세계 최대의 문화권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문화의 정통이며 중심은 조선 문명이다.²²⁾

이러한 조선 문명을 반영한 단군사상은 ‘하늘을 열다(開天)’라는 말에서 하느님의 신명작용을 부각시킨다. 시커멓게 덮고 있는 먹구름이 걷히고 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무명의 가슴을 열면 누구나 맞이하는 하늘이다. 이는 곧 우리 의식을 가리고 있는 온갖 어둠을 몰아내고 맑고 밝은 영혼을 되찾아 단군의 후손임을 확인하는 의미이다. 이처럼 광명개천(光明·開天)은 ‘밝게 빛나는 신령의 태양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므로 의식의 깨어남 또는 득도(得道)의 영성차원을 기표한다.

하느님(桓因)의 신령한 영(Holy Spirit)은 ‘하느님 아들’(桓雄)을 이 땅에 보내어 이 세상 혼(soul)의 등불이 되게 함으로써 백두신시(白頭神市: Kingdom of God in Baek Du)를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하느님 아들의 매개를 통해 이 땅에 영성차원(the spiritual dimension)을 비롯하게 하였다. 이러한 비롯함의 차원에서 바람, 구름, 비의 3층 구조가 제시된다. 바람(風伯)은 신명세계, 구름(雲師)은 생태세계, 비(雨師)는 물질세계를 표상한다. 이를 통해 위대하며 인격존재로서 하느님, 환인은 억조창생의 다수의 존재로서 신명세계, 문명세계, 물질세계의 ‘다중심층구조’(多重深層構造)로 이루어진 시공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적 위대함’이 중중무진(重重無盡)의 풍요로움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만, ‘영성소통’(spiritual communication)을 매개로 상호소통 발전하는 한 멋진 아우름을 비롯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욕구의 문명극

하느님은 영성차원에 이어 ‘문명차원’(civilization dimension)을 ‘새롭게 여는’(開新) 결단을 통하여 영성차원과 문명차원을 상호 소통시킨다. 이러한 소통 매개는 제세이화(在世理化) 이념이다. ‘세상에 나아가 이치대로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한얼 신명이 이치로 변용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문명을 일꾼이다. 이는 곧 ‘한얼 신령 태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동물세계를 조화·화해의 문명세계로 바꾸어 감이다. 이치를 아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 나·너의 구별이 없으며 삶·죽음이 한바탕 꿈이라고 터득한다. 상생·화해에 소통되면 다툼이 사라진다. 법·도덕은 부자연스러운 무용지물이 된다.

라캉의 거울이론 둘째 단계는 상징계이다. 어린아이가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주체형성과 동시에 자기분열이 일어난다.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인간 내면의

21) 최남선, 『아시조전』, 『최남선 전집』 2, 서울: 현암사, 172쪽.

22) 위의 책, 172-3쪽.

자기상징이며 이 상징에 의해 개인은 타인과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상징세계에서 어린아이는 '말하는 주체'인 자기존재와 '말해진 것의 주체' 의미를 일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기분열을 겪는다. 라캉은 이러한 분열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주체와 무의식이 생겨난다고 본다. 라캉은 상징계로의 진입과정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프로이트가 말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이고 또 하나는 '은유'이다.²³⁾

라캉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세 과정으로 구분한다. 첫째 단계에서는 아이와 어머니의 이중관계가 나타난다.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어머니에게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한다. 아이는 어머니가 욕망하는 대로 욕망하며 어머니의 욕망과 자신의 욕망을 동일시한다. 라캉은 인간이 채우기를 욕망하는 것을 '남근'(phallus)이란 용어로 표현한다. 이때 남근은 구체적인 남성 성기가 아니라, 인간 욕망대상이다.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에 자기욕망을 일치시킨 아이의 심리는 공백상태에 놓이고 개별성과 주체성은 박탈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첫 단계는 아직 '상상세계'의 상태이다. 두 번째 단계는 비로소 아이가 오이디푸스가 거침으로써 상징세계에 진입한다. 아버지 존재와 욕망의 등장이다. 만일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을 인정하면 상징적 '법'이 되고 아이는 아버지와 동일시하여 오이디푸스를 통과하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이의 주체는 어머니의 욕망에 종속된다. 결국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립된 법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아이는 가족관계에서 자기위치를 인정받고 언어와 문화와 문명세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오이디푸스적인 통과 의식은 아이에게 억압을 낳는다.

이 억압을 통해 아이의 무의식이 형성된다. 라캉은 억압에 의한 무의식의 형성이 '은유'(metaphor)라는 언어현상 구조로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어린아이에게 심리적 억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기표를 통해 대치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은유관계에 있는 기표들의 연쇄 고리를 찾아가면 최초의 의미가 밝혀지는 것처럼, 무의식의 의미도 의식적인 언어로 나타난 숨겨진 은유적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라캉에게 이 무의식적 언어는 인간의 모든 의식적 언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 된다.

무의식언어로서 인류문명의 원초성은 전 세계적으로 공히 알이나 뱀이나 용 같은 파충류로 상징되었다. 한국을 비롯하여 '우로보로스'(ouroboros) 상징은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했다. 이는 제 꼬리를 물고 있는 뱀, 영원회귀를 의미하며 시작이 없으니 끝도 없고, 우주의 뱀에 해당한다. 자기로부터 자기 자신이 아직 미분화되어져 있는 카오스적 모호성을 왜 뱀으로 상징화시켰는지는 미지수다. 뱀을 가장 원초적인 본능 혹은 힘으로 본 것은 인도의 쿤다리니(Kundalini) 요가에서 더욱 뚜렷하다. 원초적 힘은 태모(Great Mother)로 인식되어 인류문명사에 등장한다. 태모는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자이고 보호자이다. 아주 좋은 엄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말 안 들을 때는 무서운 회초리로 벌하는 엄마이다. 이런 양면성이

23) Jacques Lacan, *op. cit.*, pp.69-72.

바로 태모성격이다. 태모는 풍년과 다산(多産)을 약속한다. 그 대가로 산 인간의 피와 살을 요구한다. 이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흉년을 내려 휩쓸어 버린다. 인간들은 태모라는 존재 앞에 전전긍긍한다. 신석기 농경시대의 태모는 무서운 존재였다. 서포항유적지에서 대규모로 발굴되는 흔적들은 우리 고대 사회의 모계사회를 그대로 반영해 준다.

문명발생에 대한 해석은 문명창조와 책임의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여기서 문명 이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치의 문명세계는 절로 돌아감이다. 이를 무위이화(無爲而化)의 ‘문명 차원’(civilization dimension)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태차원이 시공개념이라면 문명차원은 콘텐츠개념이다. 이러한 희망과 염원을 단군신화에서는 동물의 소원, ‘인간이 되고 싶은 소원’(願化爲人)으로 표현한다. 원시의 동물계에서 인간문명에 대한 소망을 가시화하는 열정이다. 이 열정을 구현하려는 곰과 호랑이는 문명을 일구어 내는 태도에서 완급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동물적 생존동기부여에서 인간의 생활동기부여로 가치가 전환됨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형성과정에서 문명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고 해원상생과 공존의 필요성을 요청하게 된다. 이는 재세이념의 이치를 매개로 ‘문화 소통’(cultural communication)을 낳는다. ‘영성소통’이 신명계의 중심 빛이라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문화 소통’은 문명콘텐츠로 충만 시키는 가운데 생명존중의 가치를 상생조화로 구현한다.

3. 요구의 홍익극

단군사상에서 홍익인간(弘益人間)은 교화의 궁극목표이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해석된다. 신명세계와 연결되고, 문명세계와 소통되는 횡단매개가 이루어진다. 홍익인간은 도통군자이며 득도한 인간이다. 더 이상 매달리고 집착할 자아는 그에게 없다.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지는 않는다. 널리 도우며 타자에게 크게 이로운 인간의 역할을 실천적으로 수행한다. 생명화육의 세계에 존재하면서 인간 중심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결국 영성차원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한얼의 타자 앞에서 심정으로 기도하는 요구의 주체임을 자각하게 된다.

치화경(治化經), 『참전계경(參佺戒經)』은 전문이 366조목으로 되어 있다. 전문 핵심은 8대 강령인데 성신애제화복보응(誠信愛濟禍福報應)의 8강령이다.²⁴⁾ 그런데 이 8강령에서 제1장, 성(誠)에는 충심이 발하고 혈성이 지키는 바를 설명해 놓았고, 경신(敬神)을 비롯한 여섯 가지 본체가 있고, 이 본체에는 47 작용을 열거한다. 제2장, 신(信)은 한울 이치와 부합되는 것으로 인간사를 다룬다. 제3장의 애(愛)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자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어진 성품의 바탕이 되는 것을 다룬다. 제4장의 제(濟)는 덕성이 갖추어진 선행이며 도에 힘입어 남에게 미치는 것이다. 제5장의 화(禍)는 악이 부르는 바를 42목으로 논하고 있다. 제6장의 복(福)은 착함으로써 받게 되는 경사를 열거하고, 제7장의 보(報)는 한얼님이 악한 사

24) 宋鎬洙, 「단군사상과 민족운동」,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4, 352-353쪽.

람에게 내리는 재앙을 기술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복으로서 갚는 도리를 말한다. 제8장의 응(應)이란 악은 화보(禍報)를 초래하고 선은 복보(福報)를 받게 됨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홍익인간 이념의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한얼의 일신(一神)은 수많은 외래종교 유입을 하느님 원리로 수용하는 포용성을 발휘하였다.²⁵⁾ 최치원은 이를 일러 삼교를 포함하는 현묘지도(玄妙之道)가 한국 고유의 것임을 역설한 바 있다.

하느님은 영성차원, 문명차원에 이어 ‘물질차원(physical dimension)’을 새롭게 여는 결단을 통해 영성차원, 문명차원, 물질차원을 상호소통하게 한다. 인간의 이러한 모습은 정신분석의 방법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인식지평이 열린다. 이와 관련된 라캉의 거울이론에서 셋째 단계는 실재계이다. 이는 곧 상상과 상징의 적용이 배제된 것이다. 그것들은 의미가 없거나 우리가 현실 속에 위치시키는 데 실패한 것, 탐구하는 데 실패한 것들로서 현실의 여백이다. 실재계로는 고산신앙의 형태가 남아있다.

조선에 있어서의 고산 신앙은 남달리 뚜렷하여, 문명의 거의 전부가 산과 관계되어 이루어졌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의 고산 신앙은 ① 산의 인격화 ② 신(神)의 거주처(居住處) ③ 사령(死靈)이 가는 곳 ④ 산신당(山神堂) ⑤ 산신제(山神祭) ⑥ 여산신(女山神) 등의 여섯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산은 이집트의 피라밋같이 분묘 성격도 있고, 수메르의 지구랏이나 인디언의 피라밋같이 제단 성격도 있다.

단군사상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여인의 주술적 기도, 새 생명을 잉태하려는 ‘주원유임’(呪願有孕) 기도가 중시되고 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기대하면서 ‘하느님의 아들(환웅)’을 매개로 하느님을 닮은 생명의 잉태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는 성적 결합의 현실의 방편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고 문명을 일구기 위한 인간의 ‘존재론적 열망’(ontological yearning)을 여인의 요구사항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동학, 증산교 같은 민족의 뿌리 사상을 발굴해 낸 종교가 여성의 인권과 지위를 회복시킨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강증산이 원시반본(原始返本), 즉 민족의 원시적 근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하여 ‘大丈夫大丈夫’ (남자도 대장부, 여자도 대장부)라 하면서 수천 년간 남자에 짓밟힌 여자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한 것은, 청동기 이전의 모계 사회 때 누리던 여자기위를 다시 회복시킴이다.

칼 융이 지적하기를 인간이 원시적 상징, 즉 마술적 상징들을 부분으로 쪼개어 조각조각 나누어 생각하고 경험하게 된 것이 직선적 사고가 나타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언어는 사물을 분류할 뿐만 아니라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글로 소설과 동화를 지어 상상의 세계를 지어낸다. 그리고 순간적인 걱정을 미래로 연기시켜 잠재우는 작동도 한다. 분류, 초월, 작동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상상을 함축하면서도 풍요로운

25) ‘一神’ 용례로는 ‘吾桓建國最古 有一神 在斯白力之天 爲獨化之神 光明照宇宙 權化生萬物’(『三聖紀全』 下篇), ‘一大主神’의 용례로는 ‘爾時 一大主神 乃拱手默想曰 如今宇宙大塊 冥閉已久 混元之氣 包蘊停滯 正要啓生化育’(『揆園史話』 肇判記), ‘上帝’의 용례로는 ‘有何仙語 忽入耳中 驚起探問 則曰勿懼勿恐 世人謂我上帝 汝不知上帝耶’(『東經大全』 布德文) ‘一上帝’의 용례로는 ‘而三神卽一上帝也’(『太白逸史』 神市本紀) 등이 있다.

물질개벽을 기대하는 가운데, 영성적으로 하느님의 꿈, 문명적으로 동물의 소원. 그리고 물질적으로 여인의 기도를 담고서 풍요의 축제를 구가(謳歌)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질계를 멀리 초월하고 있는 최고신을 믿는 민족이 그 신의 신성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세상과 밀접히 관련하여 인간을 교화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신으로 표현하기 위해 삼태극으로 표현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삼태극의 표현은 초월을 표현하기 위한 인간지성의 내적 구조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초월 세계의 연속과 보존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환인이 존재하고, 그 아버지의 뜻으로 초월신명을 운반하는 아들이 있고, 이를 완성시키는 지상 활동이 존재한다.²⁶⁾ 이로써 신성이 파괴되지 않은 채 이 지상세계에 충분히 간여할 수 있다. 단군사상의 삼태극의 기표이다. 이러한 삼태극은 반만년을 통해 면면히 계승되어 한류로 이어진다.

삼태극 기표로서 하느님의 꿈은 한민족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사상의 모태, 단군신화 문법을 통해 이 꿈은 역사적으로 아픔을 토로하면서도 한얼 빛을 감추고 있다.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에서 한국 고유의 ‘하느님 빛’이 풍류도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고, 원효의 십문 화쟁론을 통해 문명의 화해와 통일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최수운의 동학이념에 해당하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人·乃·天)’이라는 메시지는 홍익인간의 지향성이 민중해방임을 역사적으로 입증한 사례이다. 이러한 삼태극 기표는 한일합방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증산에게서 극대화된다. 공자의 인의사상도 하느님 꿈을 열기에는 미흡하고, 부처님의 자비사상도 한마음의 이치를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하기에는 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박애사상도 홍익인간을 구현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천지개벽의 도수를 놓기 위해 하늘의 상제가 금수강산에 내려왔노라 하였다. 한민족은 삼태극의 기표로서 하느님·한마음·한세상을 횡단 매개하여 해원상생의 강강술래(姜降戌來)를 기의로 구현하였다.

IV. 상생한류의 삼원역동성

한국에는 고대부터 오늘의 문양에 이르기까지 삼태극(三·太極)을 즐겨 사용한다. 삼태극성은 이미 4세기경 미추왕 보검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고대 한국인은 새나 천마가 천상과 지상을 이어주고, 용은 지상과 천상, 해양을 중개하는 것으로 숭상하였다. 드라마 <주몽>의 영향으로 다리 셋 달린 까마귀, 삼족오(三足鳥)가 알려지고 삼두·일족매(三頭·一足鷹) 등의 다양한 문화재에서 삼태극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문화가 산업으로서 기획되어 인간가치창조라는 삶의 지평이 열려가고 있다.

한(韓)은 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류(流)는 ‘흐르다’의 의미인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이

26) 『三國遺事』 卷1 紀異 古朝鮮王儉朝鮮條,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白 可以弘益人間...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탈현대 이행기의 신념 변화]

	지배적인 현대적 관점	탈현대적 관점
외부 세계	원자론적: 대상들은 독립되고 자립적임. 사람들은 개별화되고 분리되어 있음	전체론, 상관적: 대상과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상호 관련되어 있음
물리적 과정	유물론적, 결정론적, 기계론적	유기적, 상호의존적, 전체적
유기체 기능	분리, 구별·부분들은 상호 교체 가능.	상관적, 상호의존적, 相互 교체 불가능.
사회적 습속	기술 지향적·간섭주의·재화 중심적	의사소통 지향적·서비스-중심적
사회적 진보	소비 의존적·자원 사용	적응 지향적·자원의 균형
경제	경쟁과 이윤·착취적	협력과 정보
인류	자연의 지배자·인간중심적	자연에 통합된 존재, '탈'인간중심적
문화	유럽 중심적·식민주의적	다원주의적
정치	위계적·권력 지향적	총체적·조화 지향적

를 한자의 형성원리로 보면, 한류는 뜻이 합쳐진 회의(會意)문자와 모양과 소리가 합쳐진 형성(形聲)문자로 이루어졌다. 류(流)는 물의 흐름(水行)으로 한류는 한국의 물줄기(혹은 바람)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었다는 뜻으로도 이해된다. 그런데 물(水)의 본성이란 '적시며 아래로 흐르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 본뜻은 '기준'(準)이며, 물이 흐르면서 그 순간의 역동성으로 끊임없이 평정을 이루는 것(和)을 말한다. 흐르지 않는 물은 평형을 이룰 수 없다. 평형을 위한 인식론적 과제는 체계철학자, 얼빈 라쓰로(Ervin Laszlo)가 제시한 관점의 전환과도 유사하다.²⁷⁾ [탈현대 이행기의 신념 변화]에서 집약된 지배적 현대관점이 서구적 인식론에 토대를 둔 관점이라고 한다면, 탈현대적 관점은 21세기 문명에서 요청되는 대안적 관점이고, 이러한 관점과 신념에로의 변화는 곧 상생한류의 삼원역동성을 강조하는 삼태극성 인식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를 탈현대 이행기의 신념 변화로서 구조화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다.

상생한류의 삼원역동성에서 나타나는 이중긍정과 이중부정의 소통논리는 자연환경, 사회환경, 정신환경 간의 의존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 점에서 이 논리는 서구의 이분법적 논리로부터 파생하는 병폐를 극복하고 미래의 생활문화 및 문명을 위한 인식론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는 사회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경제적 성장 과정이나 규모를 자연적 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추구하도록 성찰케 하는 안목을 키워준다. 그리고 정치·경제 이해관계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분쟁이나 대립을 해결하고, 종교·인종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차별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신념을 키워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총체적인 체계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지배적 양식'이며, 아직 남아 있

27) Evin Laszlo, *Vision 2020: Reordering Chaos for Global Survival* (New York : Gordon and Breach, 1994), p.6.

는 양식과 새로 부상하는 양식이 혼재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주변화의 불균등을 겪고 있고 불균등한 발전을 이룬 지역에서 자본주의를 경험하면서 뿔어내는 직감적인 표현들이, 노쇠한 중심이 이제껏 말한 그 어떤 내용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역동적으로 의미심장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후기자본주의에서는 중심조차도 주변화 되었기 때문이다.²⁸⁾

이것은 한류가 가지는 적극적 측면을 설명해주는 논리가 된다. 우선 그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체제 하에서 중심의 배제와 착취의 원리를 관찰당하며 역설적으로 혹독하게 학습하는 시점에서, 주변부적 저항성 혹은 비판성을 체득, 나름의 문제 극복 과정을 체현해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정한 문화적 해석력과 창조력으로 집적되어 한반도의 깊은 상처와 자기극복태를 상업주의 대중문화 속에서도 생동적으로 포착해내기에 이른 것이다. 한류는 적극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만들어 낸 발랄한 문화 장력(張力)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한류는, 이전에 자본주의와는 다른 반자본주의적 근대극복의 과정을 기획하고 구체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반주변부 한국과는 다른 반주변부로서의 사회주의문화의 형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중국적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 곧 중국은 자본주의에 스스로 편입된 이래 방향 전환의 경로에 서서 아직 자기 문화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

돌이켜보면 중국·북한·몽골·베트남 등 사회주의권과 일본·남한·타이완·홍콩 등 자본주의 사이의 문화적 교류는 1945년 이후 30년 이상 부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조심스럽게 시작된 문화교류는 겨우 초보적 단계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는데, 그러나 이런 문화교류의 주축이 순수예술이 아니라 대중문화, 이른바 미국화 대중문화였다는 것은 문제다. 대중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 상업주의 문화가 그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류를 아메리카니즘의 내재화와 혼종화의 경계에서 부유하는 구성체로 파악한다고 해도 크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다. 부유함, 그 자체가 새로운 구성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적극적 측면을 놓치지않는다면 말이다.²⁹⁾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든 지금은 한류로 표상되는 바와 같이 중역된 민족국가의 대중문화가 인접국가 국경을 무차별하게 넘나들면서 일으키는 돌풍 또한 대중음악과 드라마, 영화를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특히 사회주의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기 이전, 가치 중심이 해체되면서 가중된 정신적 혼돈상태를 무마시켜주는 일종의 과도적 형질을 담보해주고 있음은 주지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역으로 그 모방하기를 통해 자기 속의 내재된 문화적 형질들을 가동시키면서 역풍을 만들어가고자 함으로써 첨예한 대응양상을 예정해놓고 있다.

한류를 대중문화 교류와 문화산업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동시에 그 독특하면서도 자기정체성과 지향이 분명한 경로를 유지해가며 한류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는

28) 백원담, 『동아시아의 문화선택』, 펜타그램, 2005, 182쪽.

29) 위의 책, 184쪽.

것 또한 중요하다. 새로운 한류는 자본주의의 파행적 발전이 낳은 세계체제의 반주변부로서 안착되어 있지만, 월드컵과 촛불시위, 그리고 반세계화투쟁의 선도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듯이, 그 속에서 자본주의적 근대를 넘고자 하는 창조적 기획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그것을 단군의 창조적 역동성이 상호회통의 물굽이로 오늘에 재현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천지의 길은 반드시 중심으로 향하고 시중(時中)의 역동성으로 가능한 것이다. 음악에도 상괘의 조화(和)가 있으니, 항상적인 길, 상도(常道)로 지향해갈 뿐이다. 진정한 화합이란 하늘이 바른(正) 것이고 음양이 균등한(平) 것이다. 한류는 동아시아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함께 비추어 볼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문화가 철저히 자본화된 시대에 삶의 총체로서의 문화로 민족국가의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라는 화쟁(和諍)의 고리를 형성하게 하고, 서구에 대한 문화적 퇴각기를 실감케 하는 데서 한류의 역동성이 발견된다.

최근 중국 길림성 장춘스튜디오에서 정율성은 조선족 작곡가의 전기를 영화로 표현하였다. 예리한 안광과 성실함이야말로 한류로 형성된 동아시아의 통과 상생의 물굽이를 다시 제 길로 흐르게 할 수 있는 역동성이다. 치열한 역사적 상상력과 관계지향,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의 궤적들은 긴장의 파고로 다시 새롭게 흐르는 걱정외의 물살이고, 세상의 후미진 곳을 가장 부드럽게 감아 도는 굽이굽이의 사연을 드러낸바 있다.

이제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퍼지고 있다. 엘살바도르, 페루, 콜롬비아, 도미니카, 파나마,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남미 8개국 지상파 방송이 2006년 10월 권상우, 최지우, 김태희 등 한류스타가 출연한 <천국의 계단>을 방송했고, 드라마 <올인>이 동유럽에 보급되었다. 한류는 현대의 디지털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디지털이 채워주지 못하는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모여 합창의 하모니를 이루듯, 다른 문화가 있을 때 한 문화는 그것과 차이를 통하여 정체성을 갖는다. 한류의 정체성을 단군사상에서 찾는 것은 그것에서 한국인의 상생의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V. 맺음말

이처럼 한얼 하느님의 꿈은 영성차원에서 하느님 아들을 매개로 광명개천 욕망으로 드러나며, 동물의 소원을 매개로 생태차원에서 원화위인 욕구로 나타나며, 여인의 기도를 매개로 물질차원에서 주원유잉 요구로 이어진다. 이들 세 요소는 상호 소통된다. 다시 말하면, 천지창조의 꿈, 상호소통의 소원, 그리고 생명화육의 현실요구는 서로 다른 가치세계를 다양하게 원형적으로 소통시키면서 한민족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러한 창조적 설계를 근거로 '하느님'을 종단매개로 주님을 향한 신명세계를 창조하고, 한마음을 횡단매개로 동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의 문명세계를 일구어 내고, 한세상을 횡단매개로 다산과 풍요를 표상하는 수많은 현실요구를 실현하게 된다. 환인의 신령기운이 불특정 다수 생명과 물질세

계로 화현되면서 풍요로움을 구가한다. 단군신화는 존재(Being)가 아니라 '생성'(Becoming)의 영성가치(spiritual value)를 다양하게 구현하려는 하느님의 태초상념을 보여준다.

한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단군신화에 나타난 삼태극의 영성가치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면서 항상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통해 세계민족에게도 삼태극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함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삼태극의 기원이 영성 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영적 수행 공동체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영웅의 공동체가 아니라 밝음으로 어둠을 교화하는 성인 공동체이다. 그래서 한민족은 영성적으로 진화된 정신문명을 주변의 미개 문명인들에게 전파하는 매개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고조선 공동체의 교화 활동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단군사상이다. 단군사상에 기초한 대한민국은 천기와 지기가 응해서, 앞으로 올 큰 운세를 따라 하늘의 뜻에 의해 하느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국호이다. 한류에 나타난 한 멋진 아우름은 공동체의 신명 속에서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의 평형을 이룬다. 이 경지가 현대사회에서 집단신명으로 표출되면 한류 신바람의 흥(興)이 된다.

이처럼 한민족의 이상은 하느님(三神上帝)의 대원(大圓) 영성세계를 이 지상에 건설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광명개천, 재세이화, 홍익인간의 영성차원을 중흥단매개로 열기 위한 이념이며, 그 이념이 나타나 있는 것이 한류이다. 한반도에 반만년 역사가 흘러가면서 신명세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이 배어 있고, 문명세계와 화해하지 못하는 비극이 담겨 있다. 그러나 빛을 감출 수가 없듯이 한국인의 가슴에는 이러한 영성 빛의 숨결이 가슴에서 고동치고 있다. 이러한 양면을 이해할 때 한류의 상생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세계를 천·지·인(天地人) 삼재를 삼원구조로 드러내면서 이를 '한'으로 통합하는 삼태극사유를 중시했다. 단군사상은 한국인의 집단무의식에 면면히 계승 발전되어, 오늘의 동아사아의 문화에 새로운 '한'의 물결로서 삼원역동성을 발휘하는 생명력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철근. 『한류이야기』. 서울: 이채. 2006
- 金東春. 『天符經과 壇君史話』. 서울: 가나출판사. 1987
- 金白龍. 『天符經原典』. 大田: 回想社. 1987
- 金相日. 『한사상』. 서울: 온누리. 1998
- 金容煥. 『만다라-깨달음의 영성세계』. 서울: 열화당. 1998
- _____. 「世界倫理의 道德教育的 位相定立研究」. 『倫理教育研究』 10. 韓國倫理教育學會. 2006
- 金泰吉.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문음사. 1982
-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 編. 『金剛三昧經論』.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 _____. 『大乘起信論記會本』.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 白蓮書簡行會. 『선림고경총서』 15·16·17. 서울: 장경각. 불기 2534.
- 백원담. 『동아시아의 문화선택』. 팬타그램. 2005
- 宋鎬洙. 「단군사상과 민족운동」.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출판부. 1994
- 圓融. 『간화선』. 장경각. 1993
- 우실하. 『전통문화의 구성원리』. 소나무. 1998
- 李乙浩. 『한사상의 苗脈』. 思社研. 1986
- Evin Laszlo, Vision 2020:Reordering Chaos for Global Survival. New York:Gordon and Breach, 1994
- Kennedy, Paul.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Random House. 1993
- Malcolm David Eckel, Buddh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Paden, William. Interpreting the Sacred: ways of Viewing Religion. Boston: Beacon Press. 1992
- Peggy Morgan and Clive Lawton, Ethical Issues in Six Religious Tradition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1997

원고접수: 2007년 5월 18일 1차심사: 6월 11일 게재승인일: 6월 20일

연구자 소개: 김용환

① 전공: 종교윤리 / 소속: 충북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② 관심영역: 종교윤리와 세계윤리

③ 주요논저: 「만다라-깨달음의 영성 세계」, 「경제사회와 윤리담론」

④ E-mail: sunyanan@cbu.ac.kr

Abstract

A Study on the Dangun Thought and Han Wave

Kim Yong Hwan
 Prof. of Chungbuk University

The logocentrism is responsible for a crisis of modernity. Now it's useful to adopt Post-modern psychoanalysis methode of J. Lacan. We can find the triple polarity of divine desire, civilization want, humanitarian demand in Dangun thought. So that we can summarize trans-veral logic, Ultimate Hwan-In God, and God's becoming activity. Dangun thought would be the source of Han thought and Han wave is the outspread wave of Han thought. Han wave can be evaluated as the mediation of triple polarity of Han light of Dangun thought. The Han light is the one but can be divided into three colors such as yellow, blue, and red color. They have been represented as middle, sky, and earth to cultivate new dimension. Now the Han wave became as the new dimension of this 21st century. Without this kind of Han thought, Koreans can neither understand the traditional civilization nor communicate each other. Let's look each other in face-to-face, eye-to-eye. If you look into closely other's eyes, you will find there your figure. Korean use the expression, 'Eye-Buddha'. While we look 'Eye-Buddha' each other, The sentiment of division between You and I disappears. Even though one wants to kill you, if he finds 'Eye-Buddha' in his eyes, he would be very hard to kill you directly.

The conflict between spirituality and locality is hard one to bring about in the context of Han's though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Han thought through Lacan's psychoanalysis methode. The psychoanalysis ground for Dangun thought in which spiritual transcendence submits to its own withdrawal has the effect of returning us again and again - some of Han's thought most fetching prose has to do with obsession - to the originary, withdrawn spiritual transcendence of the other *as though* the other were continuously present to the self. That is like the movement and obsession of a faith that finds its trust as it returns again and again to its originary experience and claims, no matter how severe the doubt and opposition concerning them.

We have found special Han wave in which the withdrawal of the language of spiritual transcendence appears to be required by virtue of the withdrawal of the Korean God or the loss of vitality in traditional thought. We have noted the submission of spiritual transcendence to its own withdrawal in the thought of Han's thought. And we are aware that all of these accounts retain the sense of spiritual transcendence in their ways of putting that sense in question. In effect, it is necessary to compose universal contextual pragmatics between Dangun thought and Han thought. The orthodoxy linear Han tradition is the basis of Han wave. I argue that the trans-versality(橫斷媒介性) among divine polarity, civilization polarity, and humanitarian polarity in Dangun thought which have activated as the dynamic force of cultural choice in the East Asian cultural context.

Key words : divine desire, civilization want, humanitarian demand, eye-buddha, triple polarity, Dangun thought, Han wave, trans-versality